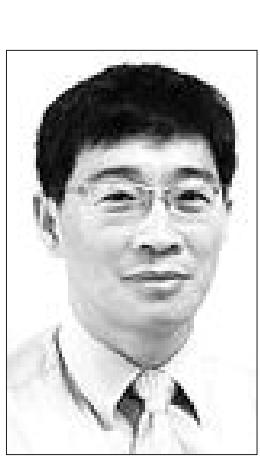


지원자 없던 소록도 병원장 자청한 박형철 씨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김중원(53) 원장이 명예퇴직 하자 고위 공무원 중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내부 공모를 실시했다. 하지만 지원자가 없었다. 수도권에서 승용차로 여섯 시간 걸리는 오지(奥地)인 까닭에 근무를 꺼린 것이다.

연봉이라며 기본급·성과급 등을 합해 7천만원에 불과, 개인의 수입에 크게 못 미친

“8개월만에 새 원장 온다”

지도 한 이유

문에 소록도

병원은 원장

없이 의사 2

명·공증보건의 7명이 진찰을 맡아왔다.

이런 사정을 들은 박 소장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 특별채용에 원서를 냈다. 지난 2005년 오스트리아 수녀 2명이 떠난데다 병원장도 없어 실의에 빠졌던 고령의 한센병 환자 642명은 새 원장(28대)이 16일 취임한다.

는 소식에 삶의 의지를 다시 불태우

고 있다.

하지만 그는 소록도 행을 택한 자신의 결정이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한다. “근무환경은 어떤 곳이나 비슷하다. 다만 그곳 주민들에게 맞는 의료서비스를 펼치는 의사들의 의지가 다를 뿐”이라는 것이다.

신임 박 원장은 전남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뒤 예방의학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지난

1995년부터

12년 동안

구 보건소장

을 지냈다.

그는 자치행

정혁신 전국대회 보건복지부문 최우수상 및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최우수기관 표창 등의 상을 수상했고,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의사로서는 드물게 전남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는 등 보건복지행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오픈기자 kroh@kwangju.co.kr

한센병환자 새 희망 넘쳐



무료 독감예방 접종 북적

무료 독감예방 접종이 시작된 15일, 광주시 남구 백운동 주민 건강증진센터에 예방 접종을 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만 65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무료 접종은 각 구청별로 이달 23~31일 까지 실시된다. 접종을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 건강증진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최현기자 choi@kwangju.co.kr

“휴대전화·MP3 반입 안돼요”

교육부,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본격 가동

교육부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개월 앞두고 수능 부정행위 방지에 위한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년의 경우 부정행위자 57명이 적발돼 성적에 무효 처리되었으며 적발 유형은 휴대전화 소지 36명·MP3 소지 7명·전자기기 소지 2명·선택과목 미준수 11명·시험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1명 등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16일부터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설치, 운영에 들어간다.

◇부정행위 유형 및 제재=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준 자,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한 자,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한 자는 1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할 경우 당해 시험만 무효처리된다. 탐구영역에서 ▲선택

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본 자 ▲감독관의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자도 당해 시험에 무효가 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및 휴대 가능 물품=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용 전화기·디지털 카메라·MP3·PMP(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전자 사전·카메라·펜·전자계산기·라디오·워크맨·시각표시기 등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등이다.

휴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수험표·연필(흑색)·지우개·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컴퓨터용 사인펜·샤프연필(흑색, 0.5mm)·시각 표시기능만 부착된 일반 시계 등이다.

휴대 가능한 물품 외 모든 물품은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윤상원 열사 조형물

18일 전남대서 제막

5·18 민중항쟁 당시 전남도청을 쳐 후까지 사수하다 산화한 고(故) 윤상원 열사(1950~1980)가 모교인 전남대학교에 되살아난다.

‘고 윤상원 열사 기념조형물 건립 추진위원회’는 오는 18일 전남대 사회과학대학 중앙정원에 윤 열사 기념 조형물을 제막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작가 최은태(전남대 미대 졸업)씨가 조각한 이 조형물은 시민군 대변인을 맡은 윤 열사가 양손을 잡았고 고뇌하는 모습의 가로 70cm·세로 40cm·높이 200cm 크기의 흉상. 조형물 양면 비석에는 윤 열사의 사진과 약력, 5월 27일 새벽에 발표한 마지막 선언문 중 일부가 새겨진다.

윤 열사는 1978년 전남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교육지표선언’ 사건을 계기로 광주시 서구 광천공단에 위치 취업, 불교대학에서 노동자 등을 가르쳤으며 5·18이 일어나자 시민 군에 참여해 마지막까지 도청을 지키다 숨졌다.

법원은 방문한 청각장애인들은 화상전화를 통해 광주 농아협회의 상근 수화통역사에게 수화로 자신이 원하는 민원사항을 전하고, 통역사는 이 내용을 법원 직원에게 전달하게 된다.

자들을 ‘부재환자’로 분류했다.

지역별 부재율은 서울(22.6%)과 대구(20.4%)가 평균치를 크게 상회한 가운데 대전(16.7%), 인천(13.8%), 전주(12.5%), 부산(11.6%), 광주(10.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부상자의 입원율은 평균 73.1%에 달한다”면서 “이는 일본(9.9%)에 비해 7배나 높은 수준으로, 나일론환자 실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청각장애인 위한 화상전화

광주지법 민원창구에 설치

광주지법은 15일 1층 원스톱 민원 창구에 화상전화(사진)를 설치, 청각장애인들이 이용하도록 했다.

법원은 방문한 청각장애인들은 화상전화를 통해 광주 농아협회의 상근 수화통역사에게 수화로 자신이 원하는 민원사항을 전하고, 통역사는 이 내용을 법원 직원에게 전달하게 된다.



화상전화기 설치는 지난달 4일 법정을 견학한 청각장애인들이 판사와의 대화에서 견의한데서 비롯됐다.

/최권기자 cki@kwangju.co.kr

12월 15일 시험악정기

흔드는 자동증!! 흔드는 자동증을 노력라!

‘부동산대출중개사’ 가뜬다!

자격기준(5733호)에 따른 시장은 물론 중개사

자격취득자 출 취업여부와 후원 학생·주부·주부인증에 민기하고

- 본인 금융계 험모전 등

- 금융전기기 모집한다



‘화상통화를 경유로
—바이오키트 제조기—’

전남지역
대리점 모집

대리점 모집

대리점 모집

BIOKIT 바이오키트(주)

책 읽기 좋은 날
10월 16일
(음 9월 6일)
◇전국날씨

주	조금	10~21°C
포	조금	11~20°C
여	조금	15~21°C
수	조금	11~21°C
도	조금	8~22°C
원	조금	8~22°C
례	조금	9~22°C
해	조금	9~22°C
남	조금	10~21°C
울	조금	9~21°C
릉	조금	7~21°C
봉	조금	15~17°C

서해남부
안나다=북서~북동 파고 0.5~1.5m
만나다=북서~북동 파고 1.0~2.0m

남해서부
안나다=북서~북동 파고 1.0~1.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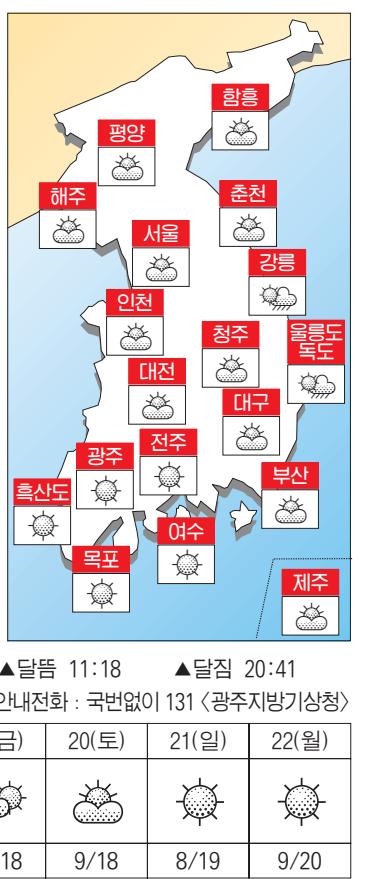
만나다=북서~북동 파고 1.0~2.0m

목포 밀물 04:30 17:12
물출 22:21 04:48

여수 밀물 11:28 23:20
물출 04:48 17:29

▲해뜸 06:39
▲해침 17:57
▲달듬 11:18
▲달침 20:41

기상안전화 : 국번없이 131(광주지방기상청)



교통사고 없는 세상 만들자

광주일보·손해보험협회 호남지부 공동 캠페인

상습 체증지역 6일에 한번 꼬 사고

③ 위험한 프린스 호텔 사거리

앞차의 꼬리를 물고 교차로로 진입하는 바람에 좌회전 차량과 뒤섞이는 경우가 많다.

지난 3년 동안 이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유형은 전방주시 태만과 부주의 등 안전운전 불이행이 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 ▲신호위반 34건 ▲음주 25건

▲안전거리 미확보 23건 ▲차로 위반 9건 ▲중앙선침범 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교통 법규 미준수가 대부분의 사고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교차로 인근에는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다 교통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관계자는 “경고 표지판 및 범규위반 감시 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상습 체증지역에 신호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안전운전 캠페인 등을 펼친다면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